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그 영향

황 경 식*

I. 해방이후 한국 윤리학계 개관

1. 20세기 세계윤리학의 동향과 한국

해방이후 한국 윤리학계의 연구현황 및 서양 윤리학의 수용사를 탐구하기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20세기 세계 윤리학계의 동향 및 판도이다. 세계 윤리학계의 현황은 한국 윤리학계의 배경적 조건이요 한국 윤리학자들의 참조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방이후 한국윤리학계에 대한 관찰은 어떤 면에서 한국윤리학계가 20세기 세계윤리학계의 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물론 세계 윤리학 특히 서양윤리학의 동향과 판도도 한결같지가 않으며 영미와 대륙의 차이 또한 엄청난 까닭에 우리는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면서도 전반적인 조망을 잊지 않고자 한다. 또한 우리의 시야를 윤리학이라는 좁은 테두리에서 벗어나 규범학 일반으로 넓힐 경우 사회철학 및 정치철학 역시 윤리적 관심사와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에도 주의하고자 한다.

20세기 초반 서양 윤리학은 형이상학적 특성이 지배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덕 철학을 다루는 대부분의 주요 학자들은 도덕에 관한 논의를 우주의 본성 및 우주에 있어서 인간의 지위와 관련 지우고자 했다. 이같이 윤리학을 형이상학에 기초함으로서 그들은 흡

* 서울대 철학과 교수

(Hume), 벤담(Bentham) 및 공리주의자 등의 자연주의적 입장에 대해 반론을 전개하면서 그들 나름으로 윤리학을 옹호하고자 했다.

자연주의는 도덕적 선, 의무 등 윤리적 개념들을 폐락, 욕구, 공리 등과 관련 지 womb으로써 윤리학을 해소시켜버리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형이상학적 윤리학자들은 윤리적 개념의 고유성과 환원 불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윤리학을 학으로써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같은 형이상학적 경향을 갖는 윤리학을 대변하는 자는 브래들리 (F.H.Bradley) 같은 학자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도덕철학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그 이후 현대윤리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어(G.E.Moore)의 저서 『윤리학 원리(Principia Ethica)』로 간주되고 있다. 무어 저술의 주요 목표는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윤리판단(의무에 대한 판단)과 그렇지 못한 윤리판단(선에 대한 판단)을 구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그는 선의 개념이 단순하고 따라서 정의 불가능한 개념임을 보이고자 했다.

무어에 따르면 선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려는, 특히 자연적 대상을 통해 정의하려는 시도는 오류라는 것이다.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인 선을 정의하려는 시도에 대해 그는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라 불렀으나 실상 이는 비자연적 대상인 선을 자연적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넘어서 선에 대한 모든 정의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말한 것인 까닭에 정의주의적 오류(Definist fallacy)라 함이 보다 합당 할 듯하다. 여하튼 무어는 이를 통해 모든 자연주의적 윤리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윤리설까지도 배격하고자 하였다.

무어는 형이상학과 윤리학간의 어떤 관계를 상정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했다. 윤리학의 주요 문제는 선의 본성을 밝히는 것이며 실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탐구는 그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선을 실재 일반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기대는 선을 다른 것을 통해 분석하려는 오류에 불과하다. 결국 무어의 목표는 헤겔 이후 영국 윤리학의 경향, 특히 브래들리를 중심으로 한 형이상학적 윤리학

을 공격의 주된 타깃으로 하고 있었다.

무어의 윤리학 아래 영국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윤리학에 있어 형 이상학적 사변에 대해 비우호적이었다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실제 세계로부터 윤리성을 도출하려는 시도보다는 직관주의(intuitionism)에 바탕한 윤리설에의 추구가 선호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옥스포드를 중심으로한 일련의 철학자 카리트(Carritt), 프리차드(Prichard), 로스(Ross), 조세프(Joseph) 그리고 캠브리지의 브로드(C.G.Broad) 등이 대표적인 직관주의자들이다.

이 무렵 독일에서 활동한 윤리학자들 중 가장 주목할만한 학자는 셀러(Max Scheler 1874-1928)와 하르트만(Nicholai Hartmann 1882-1950)이다. 이들은 훗설(E.Husserl)에 의해 창도된 현상학을 도덕가치론에 적용한 사람으로서, 이들이 제시한 가치론은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도덕적 가치가 실제한다고 믿었으며 이는 지성이 아니라 정서나 심정에 의해 직관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무어의 윤리설에 대체로 동조하는 듯하다.

영국이나 대륙을 막론하고 서구 윤리학이 가치 실재론과 윤리적 직관주의가 풍미하고 있을 무렵 영국에서는 20세기 영미 윤리학의 혁명적 방향전환을 알리는 대사건이 준비되고 있었다. 직관주의자 로스의 『윤리학의 기초』가 간행되기 3년전(1936)에 에어(Ayer)는 『언어, 진리 그리고 논리』라는 저서를 출간함으로써 윤리학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였다. 비록 그의 주장이 독창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그 저서의 영향력은 심대한 것이었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자신의 견해는 러셀(B.Russell)과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 학설의 귀결이라고 말한다.

20세기 영미철학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언어 분석철학의 윤리적 응용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정의주의(emotivism)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이건, 부정적인 의미에서이건 20세기 전반기 영미윤리학계를 강타한 하나의 사조임에 틀림없다. 이에 따르면 의미 있는 진술에는 논리적 진술과 경험적 진술 두 가지가 있을 뿐이며 윤리적 언명은 그 어느 것에

도 속하지 않고 단지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의 표명이요 청자의 감정이나 태도의 환기를 위한 것일 뿐 진정한 진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연주의의건 직관주의의건 윤리인식공정론(cognitivism)에 대항해서 정의주의자들은 윤리인식부정론(non-cognitivism)을 강하게 개진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전개된 현실상황은 윤리학자들이 단지 윤리학의 학적 근거나 윤리언어의 논리적 분석에만 몰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70년대에 이르러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필두로 윤리학은 다시 메타윤리학으로부터 규범적 전환(Normative Turn)을 기도하게 된다.

한편 독일 윤리학계는 셀러나 하르트만 이후 영미 윤리학계에 비견되는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도 없었고 따라서 규범적 전환도 보이지 않았으며 비교적 전통적인 윤리학의 틀을 고수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윤리학을 넘어 규범학 일반이라는 보다 넓은 시야로 눈을 돌릴 경우 그간에 독일에서는 윤리학의 발전이 미진했던 데 비해 풍요한 사회철학적 성과를 거둔 듯이 보인다. 맑스 사상의 현대적 의의를 찾거나 그 현대적 변용을 시도하였다. 현실사회에 대한 규범적 관심과 관련해 볼 때 네오 맑시스트적 제사조는 우리사회에서 결코 간과될 수 없다.

규범적 전환 아래 영미 윤리학에 있어서는 특히 사회윤리적 내지 사회철학적 관심이 두드러진다. 롤즈를 위시하여 자유지상주의자 노직(R.Nozick), 이들에 부응하는 공리주의적 사회윤리학자들, 분석적 맑스주의자, 여권주의자, 그밖에 생명 의료윤리학자, 환경윤리학자 등 응용 윤리학자 등은 현실에 대한 규범적 관심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한국 윤리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이른바 80년대 이후 사회윤리학적 연구가 활성화된다.

2. 해방이후 한국윤리학계의 현황 분석

해방이후 한국 윤리학계의 연구현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서울대

학교 철학사상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다년도 공동연구: 서양철학의 유입과 그 영향”을 위해 1915년부터 1992년까지 저술, 학위논문, 논문 등 6042편의 자료가 수집, 분류된 것과 그 밖에 그리고 그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필자가 수집, 소장하고 있는 900여편의 추가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철학사상연구소가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다년도 공동연구 1차년도 연구결과에서 김남두 교수가 평가한 보고서에 힘입은 바 크다.

필자가 수집한 총자료 7000여건중 윤리학과 관련된 것은 대체로 그 10%정도인 700여건에 이른다. 그밖에 사회, 역사나 인간, 문화 등에서 다시 윤리적 함축을 지닌 것들을 추려낼 경우 전체자료중 적어도 윤리적 내지 사회윤리적 관심에서 쓰여진 글들은 20여%로 추산될 수 있다. 이중 윤리학 고유 항목으로 분류된 700여편중 단행본은 100여건이 넘으며 학위논문이 150여건 일반논문이 450여건으로 대별된다. 70년대 까지 윤리학 연구물들은 교재, 개론서들이 대부분을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철학자 개인과 관련된 것으로는 칸트 윤리학이 압도적이며 그외 하르트만, 뮐러, 스피노자의 윤리학에 대한 연구가 70년대 이전까지 주종을 이룬다.

70년대 이후에는 서양윤리 개론서의 번역과 더불어 주제별 저술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많이 연구되는 윤리학자로는 헤어, 스티븐슨, 무어 등이며, 80년대 이후에는 롤즈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이다. 70년대 이후 자료에서 분석 윤리학이 50여건인데 비해 정의론을 중심으로 한 사회윤리학이 100여편을 넘는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비록 직접적으로 윤리학 자료라 하기는 어려우나 넓은 의미에서 윤리학적 성과라 할 수 있는 사회, 역사, 인간, 문화 등의 자료중 700여편도 넓은 의미에서 윤리학적 자료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맑스와 관련된 건수는 그중 70%가 넘는 500여편에 이른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이는 많은 철학도들이 한국현실의 규범적 요구가 영미 윤리학보다는 맑스 사회철학에 의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추정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1) 분과로서의 윤리학

동양철학(유학 혹은 불교)은 물론 서양의 전통철학에 있어서도 철학의 분과별 구분은 그리 선명하지 않았다. 이론 철학으로서의 형이상학과 인식론, 실천철학으로서의 윤리학, 정치철학 등의 대체적 구분이 있긴 했으나 한 철학자의 사상체계에 이 모든 분야들이 대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 철학계에 있어서도 철학 속의 각 영역이 세분화된 시작한 것은 서양학문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해방이후의 일이며 특히 윤리학이 철학의 독립된 한 분과로서 저술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비록 철학의 한 분과로서 윤리학 개론서들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나 이들 저술들의 내용은 윤리학의 제문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나 비판적 연구이기보다는 지극히 입문적이고 개략적인 소개에 불과했다. 또한 논의의 차원이 서술 윤리학,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간의 구분아래 이루어진 것이기보다는 이 모든 관점이 혼합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즈음 주목할만한 개론서로서 김기석의 『윤리전서』(1960), 『윤리강령』(1961), 그리고 김두현의 『윤리학』(1960), 『가치론』(1961) 등이 있으며 이들은 분과로서의 윤리학을 보여주는 선구적 저술들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손꼽을 만한 윤리학 개론서들이 있으나 가장 널리 읽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는 김태길의 『윤리학』(1964)이 있으며 이밖에도 최재희의 『윤리학 원론』, 김형석의 『윤리학』 등이 있다. 번역된 윤리학 개론서로서 많이 읽히는 것으로는 프랑케나의 『윤리학』, 폴 테일러의 『윤리학의 기본원리』, 싱어의 『실천 윤리학』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20여종 가량의 역서가 있다.

번역된 윤리학 고전으로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최명관), 스피노자의 『윤리학』(강영계),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원론』(정진), 『실천이성 비판』(최재희), 하르트만의 『윤리학』(전원배), 밀의 『자유론』(김형철), 베르그송의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강영계), 흉스의 『리바이어던』(이극찬), 로크의 『정부론』(이극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막스의 『자본론』 등이 주목할 만한 것들이다.

2) 메타 윤리학적 토대

그런데 윤리학의 학적 기초 즉 학으로서의 윤리학의 가능 근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역시 영미를 중심으로 발전된 20세기의 메타 윤리학적 성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본격적으로 연구 소개한 저술은 김태길의 『윤리학』(1964)이었다. 이는 메타 윤리학을 기초로 전통적인 서구 윤리학과 현대의 메타윤리학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명실공히 한국 윤리학계의 신기원을 이룬 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윤리학계의 방법론적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타윤리학적 관심은 그 이후에도 갖가지 논문과 번역서로 나타났다. 무어의 윤리설에 대해 10여편 이상의 논문이 쏟아졌으며 이밖에도 자연주의적 오류, 선의 정의 가능성 연구 등 무어와 관련된 논문은 20여편을 능가하고 있다. 나아가 에어, 스티븐슨(Stevenson) 등 이모티비즘에 관한 논문, 헤어와 툴민 등에 대한 연구, 루이스(Lewis), 비트겐슈타인 등의 윤리설에 대한 논문도 발표된다. 국외 박사로는 김태길 이후에 김영진 교수, 국내에서는 김상배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이 메타 윤리학과 관련된 대표적인 논문이다.

이즈음 독일 윤리학자들의 연구는 보다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윤리사상에 대한 연구논문도 간혹 보이기는 하나 많은 학자들이 칸트의 윤리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칸트 윤리설에 못지 않게 논의되는 것으로는 칸트 윤리학의 형식주의적 성격을 비판하고 나온 웰러의 실질 윤리학,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는 하르트만의 윤리설 등이다. 특히 전원배 교수와 하영석 교수의 연구논문은 주목할 만하다.

3) 사회윤리학적 탐색

메타윤리학적 기초가 윤리학의 학문적 정립에 있어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긴 하나 그것이 갖는 지나친 추상성 내지 협애

성으로 인해 20년 중반 이후 많은 윤리학자들은 보다 응용적이고 실천적인 주제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개인적 성과로는 윤리의 사회적 측면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고범서의 『개인윤리와 사회윤리』(1970), 집단적으로는 김태길을 위시해서 여러 윤리학자들에 의해 토론되고 집필된 『정의의 철학』(1976)이 사회윤리학적 탐색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걸쳐 번역 소개된 롤즈의 『정의론』(1977), 노직의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포퍼의 『개방사회와 그 적들』은 이러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도학선이 되었다.

이 밖에도 권리론을 연구한 조성민, 정치윤리를 연구한 김용환, 사회윤리를 공부한 김형철, 박정순 등이 윤리학계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윤리적 관심은 더욱 고조되어 그 방면의 논문들이 연속해서 발표된다. 이와 더불어 실천윤리, 생명윤리, 의료윤리, 노동윤리, 직업윤리, 군인윤리, 기업윤리에 관한 논문들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라도 한 듯 자주 거론되기에 이른다.

우리는 이상에서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윤리학사를 크게 분과로서의 윤리학을 정립한 시기, 메타윤리학적 토대를 다진 시기, 사회윤리학적 탐색을 시도한 시기 등 세 시기로 구분해 보았다. 이는 단순히 시대구분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간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나눌 수 있는 주제별 범주로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다소 지나친 단순화의 우려가 있기는 하나 이같은 구분은 한국 윤리학사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그간의 윤리학적 성과는 지역별로 영미 윤리학, 대륙 윤리학, 동양 윤리학 등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 영미 윤리학을 소개한 대표적 저술가로는 김태길, 김영철, 김영진, 김팔곤, 김기순, 황경식, 김형철, 박정순 등이 있고 대륙 윤리학의 소개자로서는 최일운, 민동근, 하영석, 김용정, 전원배, 최재희, 강성위 등이 있다. 그리고 동양 윤리학은 윤리학이 따로 분과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양 사상 자체가 다분히 윤리학적 함축을 갖는 까닭에 대부분의 동양철학자들을 윤리학자로 간주할 수도 있겠으나 특히 박종홍, 김경탁, 이상은, 김충렬,

이기영, 김동화 등의 유불도 저술은 곳곳에 동양 윤리 사상에 대한 관심이 함축되어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관심영역별 구분이나 지역연구별 구분은 베타적 분류이기보다는 중첩되는 분류로서 해방 이후 윤리학적 성과를 정리함에 있어 우리는 관심영역별 구분을 중심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지역연구별 구분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본다. 구분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윤리학과 사회철학간의 통념적 구별이다.

우리는 대체로 대륙철학의 규범적 연구는 사회철학으로, 영미철학의 규범적 연구는 윤리학으로 분류하는 그릇된 관행에 젖어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미의 사회철학적 관심까지도 윤리학으로, 대륙의 사회윤리적 관심은 사회철학으로 분류함으로써 학문 분류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현실적 제문제에 대한 철학적 접근에 있어서 비효율적 난맥상을 노정하고 있어 이점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연구 및 제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또 한가지 관심은 서양윤리의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현실문제를 고민의 대상으로 삼는 윤리적 연구의 흔적을 탐색하는 일이다. 종래에 국민윤리 분야에서 이런 시도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나 그같은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들이 요구된다. 그것이 서양윤리의 한국적 토착화를 위해서이건 고유한 한국윤리의 정립을 위해서이건, 해방 이후 어언 반세기를 맞는 우리 윤리학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의 현실을 타개할 행위규범을 우리의 언어로 연구 제시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3. 한국 윤리학계에 대한 논의와 전망

1) 베타 윤리학적 탐구의 빛과 그림자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영미 언어 분석철학에 바탕을 둔 베타윤리학적 탐구는 20세기 윤리학 아니 윤리학사 일반에 있어 일대 사건이요

그 함축은 혁명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비록 60년대에 이르러 영미에 있어서 메타윤리학은 다소 퇴조하는 사상이긴 하나 이로 인해 그 이후의 윤리학적 논의는 보다 겹손, 온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밀, 정확해야 한다는 요구를 안게 된다.

미국에서 메타윤리학으로 학위를 끝낸 김태길 교수가 이를 한국에 소개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가 『윤리학』(1964)을 간행한 이즈음의 일이다. 이 책은 최근의 메타 윤리학에 대한 소개를 근간으로 하고, 전통윤리학을 윤리인식론적 구분에 따라 형이상학적 윤리설, 자연주의적 윤리설, 직각론적 윤리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김태길의 윤리학은 출간된 이래 20 여년 이상 서울대학을 위시한 각 대학의 중심적인 윤리 교과서였으며 윤리학 초학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입문서가 되었다. 이 책은 비단 윤리학의 입문서에 그치지 않고 분석철학적 훈련에 입각해 철학하는 한 전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최초의 분석철학적 저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래 우리의 철학적 풍토는 철학적 개념들의 의미에 대해 그다지 명료하거나 정밀하지도 않았고 주장은 논변적으로 정리하는 훈련도 부실하였다. 김태길 교수의 윤리학은 그런 뜻에서 우리 철학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몽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 이후 번역된 윤리학 개론서 몇 편을 제외한다면 이 책은 지금도 윤리학 입문서로서 탁월한 지위를 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효시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메타윤리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일기 시작했으며 이같은 연구 또한 우리의 윤리적 탐색에 있어 계몽주의적 공헌을 했다는 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윤리에 대한 메타윤리적 접근은 그것이 학문의 기초를 다짐에 있어 더없이 소중한 가치를 갖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그것이 윤리 그 자체를 대신하거나 윤리학의 전부일 수는 없는 것이다.

메타윤리학적 논의가 우리 학계를 주도하는 동안 현실의 긴박한 규범적 요구는 일단 유보되거나 팔호 쳐질 수밖에 없었다. 현실을 개혁하거나 구제해야 한다는 규범적 관심은 메타윤리학 속에서 해답을 발

견할 수 없었으며 그같은 욕구를 보다 강하게 갖는 학생들은 그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고자 했었다. 따라서 메타윤리학에 대한 연구가 갖는 긴요성에 비해 그 전공자가 희소한 것은 바로 저간의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현실의 규범적 요구는 두 가지 서로 상이한 진로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다. 그중 하나는 그간에 비제도권 내지는 지하대학을 지배해온 좌파적 성향의 사회철학이다. 맑스, 레닌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그에 앞서 적어도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규범적 관심에서 발산된 것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들의 안목에서 볼 때 메타윤리학적 논의는 배부른 부르죠아 윤리학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현실의 규범적 요구가 반영된 다른 방식은 정부가 주도한 제도권 내적인 것으로서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시작된 국민윤리 교육이다. 이는 비제도권의 좌파적 성향에 대립하여 나타난 우파적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서 철저히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좌우의 이념이 격돌하는 현실적 갈등을 외면해 오던 상아탑의 윤리학계가 서서히 현실적 관심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중반을 넘어서이다. 사회윤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학회명칭도 사회, 윤리학회로 개명되면서 사회윤리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열은 더욱 고조되기에 이른다. 이제 단순히 수입된 서구의 사회윤리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현실에 바탕한 사회윤리적 사색과 성과가 요구되고 있다.

2) 한국 윤리학회와 한국 사회 윤리학회

70년대 중반까지 한국 철학계는 분과학회로 분화되지 않은 채 한국 철학회로 통합적인 학회활동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철학인구가 증대되고 분과별 전공자가 늘어나자 한국철학회는 산하에 분과학회를 개설하게 되었다. 분설철학분과, 현상학분과, 동양철학분과, 논리학분과를 위시하여 윤리학회도 그 당시 한국철학회 윤리분과 연구회로 발족하게

되었다. 김태길 교수님의 발의 하에 70여명의 지원자를 규합하여 발기하게 된 윤리분과 연구회는 고려대 김영철 교수를 초대회장으로 모시고 춘계 및 추계로 연 2회 연구 발표회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2대 회장은 동국대 김용정 교수가, 3대 회장은 인하대 김영진 교수, 4대 회장은 숭실대 김기순 교수가 회장을 맡았고 초대부터 간사를 역임하던 황경식 교수가 3대 째부터 부회장직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회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정기 연구발표회 역시 연 2회 씩 철저히 진행되었고 주제는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90년대 초반 5대 회장으로 서울대 황경식 교수가 선임되었고 한국 철학회 윤리분과 연구회가 단독 학회로 독립함과 아울러 그 명칭을 한국 사회 윤리학회로 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한국 사회에 대한 규범적 관심에 대한 탐구는 윤리학자들만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사회철학도들과의 제휴가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학회가 주제를 좁혀 사회윤리학회가 된 것이 아니고 사회철학과 윤리학의 통합학회라는 의미에서 사회 윤리학회임을 분명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회윤리학회는 영미중심의 이른바 윤리학자들과 대륙중심의 사회 철학자들이 한데 모여 월1회의 세미나를 갖기로 결정하였고 동계와 하계에 각각 1회씩 1박 2일의 워크샵을 갖기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간에 대우재단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첫 번째 발표논문들을 모아 『사회계약론 연구』라는 이름으로 20여편으로 된 논문집을 출간했다. 공동체주의와 담론윤리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후의 논문들은 조만간 다시 한 권의 책으로 간행될 예정이다.

한국 사회윤리학회는 한국사회에 대한 규범적 관심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단지 사회철학과 윤리학의 제휴만이 아니라 법학회, 정치학회, 사회학회 등과도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한국 규범과학 세미나 등을 기획하고 이미 여타 사회과학학회들과 협의 중에 있다.

II. 해방~1979. 한국 윤리학계의 현황

1. 한국 윤리학계의 출발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서양철학적 영향아래 한국에서 쓰여진 최초의 윤리서는 김두현 박사의 『윤리학개론』이 아닌가 한다. 이 책은 1946년에 초판이 간행되었고 1952년에 개정판이 나왔으며 다시 1961년에 중보수정판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52년 개정판 서언에서 “여러해 동안 여러 전문대학에서 강의해왔던 초안을 이 방면의 초학자들을 위한 입문서로 기도한 것”으로서 “특수부문에 관한 이론의 지나친 천착을 피하고 될 수 있는대로 널리 윤리학 전반에 관한 문제를 개설하는데 주력하였다.”고 말한다.

참고삼아 61년 중보수정판의 목차를 일별해보면, 제 1장 윤리학의 일반개념은 윤리학의 의의, 성질, 범위,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며, 제 2장 행위론은 행위, 동기와 결과, 책임의 문제, 행위와 품성을 논의하고, 제 3장 양심론에서는 양심의 본질과 작용, 양심의 기원과 발달 등을 논한다. 제 4장 표준론에서는 윤리설 일반을 설명하고 있는데 법칙주의와 목적주의, 형식설, 폐락설과 금욕설, 공리설, 주행설, 자아실현설, 행복과 완전 등이 논의된다.

제 5장 가치론에서는 가치의 의의, 등급, 절대적 가치, 문화와 윤리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제 6장 인격론에서는 인간의 규정, 인격의 본질, 인격의 실현, 개인과 사회 등이 논의된다. 실존철학의 윤리를 다루는 제 7장 초극론에서는 실존주의의 연원, 하이데거의 실존철학, 야스페스의 실존철학, 실존과 이성 등이 논의되고 제 8장 의지자유론에서는 필연론과 자유론, 도덕적 자유, 자유주의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제 9장 의무론에서는 의무의 본질, 의무와 권리 등을 다루고 있으며, 제 10장 덕론에서는 덕의 본질과 종류 그리고 주덕의 내용등을 논의하고 있다. 끝으로 정치이념을 다루는 제 11장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서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민주사회주의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바와 같이 김두현 박사의 *{윤리학개론}*은 한국에서 출간된 최초의 윤리학 저서로는 놀라울 정도로 대부분의 주제들이 균형있게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도 김두현 박사는 *{가치론}*(1975), *{서양윤리학사}*(1976) 등의 저서를 통해서 윤리학 방면에 있어 서양철학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학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무렵 서양윤리학을 국내에 소개한 학자로는 *{윤리전서 I}*(1960), *{윤리강령}*(1961) 등을 저술한 김기석 교수가 있으나 저술의 내용은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윤리학이기보다는 실천적 주제들에 대한 수상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김태길 교수의 *{윤리학개설}*(1956)이 출간된 것도 이 무렵을 전후해서이다. 이 책은 서장, 현대와 윤리학에서 철학의 일부문으로서의 윤리학, 현대의 불안성, 현대사회와 윤리학의 위기, 윤리학의 반성 등을 다루고, 제 1장 윤리학의 과제에서는 윤리학의 목표, 절대에 대한 염원, 도덕과 절대에 대한 염원, 도덕에 대한 회의와 새로운 윤리학의 과제 등을 논의하며, 제 2장 윤리학설에 관한 사적 관점에서는 고대회립의 윤리학설, 중세 기독교의 윤리사상, 근대의 윤리학설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제 3장 도덕현상의 본질에서는 도덕현상의 다양성을 내세우는 경험론의 주장을 긍정하면서 이 긍정을 심리학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며 도덕현상의 기원과 도덕의 본질을 논의한다. 제 4장 윤리학의 방향에서는 도덕의 필연성, 윤리학의 가능성, 윤리학의 문제와 구상, 방법소고 등이 제시된다. 끝으로 제 5장 인간성과 행위의 세계에서는 행동, 욕구, 성격, 인간존재의 사회성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 윤리학계는 김두현, 김기석, 김태길 등 몇분의 학자와 그들의 개론서로 문을 열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동양학에 있어 윤리학이 독립적인 분야일 수가 없었고 서양에 있어서도 전통철학에 있어 실천철학으로서 윤리학이 철학의 다른 분야와 유기적인 관련하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학계에서 60년대를 전후해서 윤리학이 철학의 다른 분야로부터 분과화되기 시작해서 제 길을 걷

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2. 영미 메타윤리학의 연구

한국윤리학계의 지각변동은 거의 전적으로 한사람의 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셈이다. 서울대학교의 김태길 교수가 미국무성 초빙으로 도미하여 존스 흉킨즈 대학원에서 수학한 것이 1957년이었고 “Naturalism and Emotivism : Some Aspects of Moral Judgment”로 동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한국 윤리학계에 있어 메타윤리학적 전회를 예고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귀국후 김태길 교수는 메타윤리학적 훈련을 통해 얻어진 새로운 시각으로 윤리학 전반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결실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1964년의 박영사에서 간행된 『윤리학』 이란 저술이다.

『윤리학』이란 저서는 해방이후 쓰여진 수많은 철학서들 중 최장기 스테디 셀러로서 그 이후 한국 윤리학계의 연구방향을 주도해온 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영미에 있어서 메타윤리학은 20세기 초반에 시작되어 이미 60년대에 이르러서는 퇴조하기 시작하여 70년대에 이른바 <규범적 전회 (Normative Turn)>를 맞게 된다. 그러나 20세기 전반기 영미 윤리학계를 풍미했던 사조가 한국학계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이같이 우리에게 있어 생소한 윤리학적 경향의 소개가 갖는 의의는 실로 심대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저자도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책은 현대에 관한 부분이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의 것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관점은 오히려 현대에 둔 듯한 인상이 짙다. 이 ‘현대적 관점’이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메타윤리적 관점’이라 생각된다. 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종래의 규범윤리학적 물음에 앞서 그런 물음이 도대체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윤리학이 학으로서 성립할 수 있느냐”라는 분석윤리학적, 메타윤리학적 작업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메타윤리적 작업이

란 크게 나누어 가치언어 혹은 도덕언어의 의미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도덕적 진리나 도덕적 지식을 문제삼는 도덕인식론으로 이루어지며 저자는 이 두가지 관점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윤리학의 학적 가능성을 탐진하고 있다.

저자는 이같은 메타윤리학적 관점에서 무어(G.E.Moore)를 따라 고전적인 윤리학설들을 크게 세부류로, 즉 형이상학적 윤리설, 자연주의적 윤리설, 직각론적 윤리설로 나누고 이 세 유형을 대표하는 학설들을 각각 둘씩 뽑아서 도합 여섯 개의 학설을 소개하고 있다. 형이상학적 윤리학자 가운데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피노자를, 자연주의적 윤리학자 가운데서는 흉과 공리주의자들을, 그리고 직각론자들 가운데서는 프라이스와 칸트를 각각 선택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윤리학에 관한 역사적인 지식의 기초를 닦고자 하는 동시에 고전적 윤리학설이 가진 일반적인 난점의 소재를 밝히고자 학설의 소개마다 저자나름의 비판적 고찰을 덧붙이고 있다.

“윤리학이 학으로서 성립할 수 있느냐”라는 메타윤리적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2부에서는 이 물음에 대해 궁정론자, 부정론자, 절충론자의 입장을 나누어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궁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대표로서 저자는 무어와 로스의 직각론적 견해 및 페리(Perry)와 뷰이(Dewey)의 자연주의적 견해를 소개한다.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대표로서는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이른바 정의주의(emotivism)를 소개하고 있으며 끝으로 학의 개념을 넓게 해석할 경우 윤리학도 충분히 학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절충론의 입장을 취하는 대표로서는 이모티비즘을 수정한 스티븐슨과 일상언어철학에 입각한 헤어를 소개하고 있다.

김태길 교수는 전통윤리학과 현대 영미윤리학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뒤 나름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에 앞서 김교수는 지금까지 고찰해온 서양윤리 특히 영미윤리학에 있어서 취사선택한 내용을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논고를 위한 전체적 방향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가 특히 이점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그것이 영미 메타윤리학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학자가 제시한 견해일 뿐만 아니라 후학들과 더불어 한국 윤리학계의 정향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선 저자는 스티븐슨과 헤어 등을 따라 윤리인식 부정론을 내세우는 극단적인 논리 실증주의에 반대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반대가 평가적 발언과 서술적 발언의 논리적 성격을 근본에 있어서 같다고 보는 자연주의적 견해에 대한 찬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저자는 전형적인 도덕판단이 서술적인 표현으로 옮겨 놓을 수 없는 고유한 일면(스티븐슨은 이를 정의적 의미라고 불렀고 헤어는 규정적 의미라고 부름)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

둘째, 저자는 가치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독립해 있다는 실재론적 견지를 배척하고자 한다. 물론 저자는 이를 배척하는 이유가 가치 실재론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다. 저자는 세계관 내지 인생관을 떠받드는 마지막 발판은 언제나 일종의 믿음이며 믿음에 대해서는 완전한 증명도 반증도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다만 필자의 생각에 냉철한 과학적 정신을 따르며 신비나 희망의 감정을 섞지 않는 한 가치와 정의(情意)와의 뗄 수 없는 관계를 부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셋째, 흔히 직각론(intuitionism)의 이름으로 불리는 가치 실재론을 물리치는 경험론적 견지는 동시에 모든 형이상학적 윤리설도 거부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형이상학적 윤리설은 그 기초가 되는 궁극적 원리가 그 자체로서 평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각론과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궁극적 원리가 과학적인 검토를 거부하는 점에서는 직각론과 마찬가지이며 모든 경험론적 윤리설과는 출발선상의 가정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저자는 인간 심리의 참여가 가치의 발생을 위하여 필수조건이라고 보는 이른바 상대론적 가치설에 찬동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저자는 동시에 윤리에 대한 자연론자들의 정의에도 찬동하지 않는 이

유로서 두가지를 들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자연론자들의 정의는 가치언어의 정의적 측면 혹은 규정적 기능을 간과하고 있으며 자연론자들은 자신들의 정의 가운데 설득적인 요소 또는 주체적 결단의 요소가 들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저자의 윤리적 태도는 부분적으로 이견이 있는 하나 스티븐슨이나 헤어의 윤리적 입장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윤리학계에 있어 기념비적인 이 저술이 간행된 이후에도 김태길 교수는 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메타윤리학과 관련된 연구논문을 발표함은 물론 서울대학 윤리학 강의 및 강독에서도 메타윤리학과 유관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김교수는 무릇 윤리학적 연구에 앞서 메타윤리학적 훈련이 요긴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과정으로 생각하여 그에 따라 후학들을 양성하고자 했다. 그 무렵 김교수의 가르침으로 윤리학을 전공하게 된 학자들로서는 김영진, 김기순, 황경식, 장용선, 조성민, 김상배, 김영기 등이 있다.

이 무렵을 전후해서 영미윤리학과 관련된 연구성과로서 주목할만한 학자와 저술로서는 김영철의 〈윤리학에 있어서의 당위와 존재, 자연론적 오류에 관하여〉(1963), 김기순의 〈윤리학에 있어서의 상대론과 실재론〉(1963), 소홍렬의 *Virtue-Centered Ethics and System-Centered Ethics* (1964), 고범서의 〈무어의 원리의 결단〉(1966), 송석구의 〈무어의 선(善)에 관한 연구〉(1969) 등이 있으며 70년대에도 김종문의 무어 연구, 장용선의 헤어 연구, 최창한의 존 듀이 연구, 이석재의 스티븐슨 연구, 황경식의 스티븐슨 연구, 김혜숙의 무어 연구, 조성민의 싱어 연구 등이 두드러 진다.

3. 독일 윤리학의 연구상황

윤리학의 의미를 규범철학 내지 실천철학과 같이 보다 광의로 해석 할 경우 한국 윤리학계의 독일윤리학적 관심은 크게 서양 전통윤리학에 대한 연구와 맑시즘에 대한 사회철학적 연구로 대별된다. 20세기

영미윤리학이 분석철학에 바탕한 메타윤리학적 경향이 그 특징이라 한다면 독일 윤리학은 그같은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맑스주의 등 사회철학적 탐색이 두드러진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 있어서 독일 윤리학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사회철학적 연구 상황에도 주목해보고자 한다.

독일 전통윤리학,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는 칸트 윤리학의 연구자와 논제를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 정하경 [Kant의 도덕율과 자유연구](1962), 박태흔 [Kant 정언명법의 해석] (1963), 이원상 [Kant의 도덕과 행위의 가치문제](1965), 장재덕 [Kant에 있어서 최고선에 대한 소고](1966), 최일운 [선험적 자유의 본질, 실천이성비판의 근본문제로서](1966), 이창복 [Kant의 자유론 비판](1967), 전원배 [윤리학에 있어서의 형식주의와 실질주의](1967) 이 밖에도 칸트 윤리학 연구자로서는 김성진, 박선목, 조남일, 이화춘, 박중신, 서승덕, 유준수, 신팽철, 임태묵, 김낙구, 이희주, 김팔곤, 하영석, 백종현, 서배식, 정재동, 임혁재 등이다.

쉘러(M. Scheler) 및 하르트만(Hartmann), 훈설(Husserl)의 윤리학에 대한 관심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찍이 60년대에 이 봄면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와 논제로는 민동근의 [N. Hartmann의 윤리적 가치에 관한 연구](1965), 조희영 [Max Scheler와 N. Hartmann에 있어서의 가치의 서열문제](1965) 등이 있으며 70년대에 이르러서는 하영석 [초기 Scheler 철학교찰, 가치윤리학 정초에의 시도](1971), [N. Hartmann에 있어서의 자유의지의 문제](1974), [Kant의 선험적 윤리학의 문제점](1977), [선험적 윤리학과 현상학적 윤리학](1977), 민동근 [N. Hartmann의 윤리적 근본가치와 특수가치(I)](1979), 박태흔 [Ed. Husserl의 윤리사상](1979), 김태관 [막스 세엘러의 윤리학에 관한 고찰 : 그의 가치철학과의 관련에 있어서](1980) 등이 있다.

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한국윤리학계의 독일 윤리학 연구는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압도적으로 칸트에 집중되고 있으며 나아가 칸트의 선험적 윤리학을 비판하고 나온 막스 쉘러나 하르트만의 현상학적

윤리학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윤리학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은 자연히 칸트의 윤리학과 셀러 및 하르트만의 윤리학 간에 성립하는 논의의 맥락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관심과 주목의 표적이 윤리학의 근본문제인 도덕의 원리에 관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칸트가 전통 윤리학이 내세운 도덕원리로서 행복의 원리와 완성의 원리는, 진정한 도덕의 원리가 될 수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신의 입장은 전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행복이라는 경험적 원리는 행복이 자애의 감정을 통해 누구나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에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하여야 할 도덕법의 기초가 될 수 없으며 완성의 원리는 완전이라는 이성개념을 최고목적으로 보는 것이긴 하나 그 개념 또한 공허, 막연하여 도덕목적으로 부적합하며 또한 완전이라는 개념은 도덕성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순환논법을 면할 수 없는 까닭에 도덕의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행복의 원리와 완성의 원리는 행복이니 완전이니 하는 실질적 목적이 대상으로서 의지규정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보편적 입법의 형식을 의지의 직접적인 규정근거로 보는 순수이성의 형식적인 실천원리만이 도덕원리가 될 수 있다고 칸트는 단정한다. 칸트의 윤리학이 형식주의 윤리학 또는 형식윤리학이라고 규정되는 이유가 바로 이점에 있는 것이다. 정언명법은 행위의 목적이나 결과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도덕법의 선천적 형식이며 행위의 주체에 대한 당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하튼 칸트는 이같은 형식적 원리에 의해 도덕의 보편타당성의 근거를 확립하는 동시에 윤리학을 하나의 학으로 끌어올렸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두에 등장한 막스 셀러(Max Scheler)는 칸트의 형식적 윤리학을 비판하면서 실질적 윤리학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모든 당위는 가치를 토대로 해서 성립하는 까닭에 가치가 당위의 근거라고 하여 칸트와는 정반대로 당위가 아니라 가치가 도덕

의 근본원리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나아가 셀러는 선천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을 동일시한 칸트를 비판하면서 선천적 인식에서도 형식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의 대립이 있듯이 후천적 인식에서도 두가지간의 대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모든 당위의 근거가 되는 가치는 가치물이나 평가작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선천적 실질이기 때문에 윤리학은 형식적인 당위보다는 선천적 실질인 가치를 도덕의 원리로 하는 실질적 가치학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현대 독일윤리학의 문제의식은 도덕 원리에 대한 형식과 실질, 당위와 가치의 대립으로 집약되는 칸트의 형식주의와 셀러의 실질주의의 대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일윤리학의 연구자들은 이상의 두가지 윤리학 모형중 어느 한편에 서서 상대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양자의 지양가능성을 통해 새로운 윤리학의 전망을 타진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러한 지양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 학자로는 전원배 교수와 하영석 교수를 들 수 있다.

가치에 비해 당위에 큰 비중을 두는 칸트의 의무윤리학과 당위에 비해 가치에 큰 비중을 두는 셀러의 가치윤리학간의 화해를 위해 전원배, 하영석 두 교수는 모두 하르트만(N. Hartmann)을 중재자로 끌어들인다. “당위는 가치의 형식적 제약이고 가치는 당위의 실질적 제약”이라 주장하는 하르트만은 가치와 당위에 동등한 비중을 두고 양 극단을 종합한 체계적 윤리학을 구상한다. 그래서 하르트만은 윤리학의 근본문제를 제 1근본문제와 제 2근본문제로 구분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전자로 그리고 진정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후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르트만은 제 2의 근본문제가 제 1의 근본문제보다 선행하며 이를 제약하는 상위의 문제라 하여 셀러의 가치윤리학에 가까이 다가서면서도 윤리학에 있어서 규범적인 요구를 과소평 가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함으로써 칸트의 의무윤리학의 중요성을 내세워 동시에 칸트의 형식윤리학이 결코 실질적인 윤리학과 양립할 수 없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원배 교수는 [윤리학에 있어서의 형식주의와 실질주의]라는 논문의 결론에서 두 윤리설간의 화해와 관련해서 하르트만과는 다소 다른 입장으로 귀결한다. 형식과 실질과의 관계를 형식은 규정하고 실질은 규정되는 규정관계로 보고 있는 헤겔(Hegel)의 변증법을 원용하여 전 교수는 우리의 도덕생활에 있어서는 셀러의 주장과 같이 가치가 당위를 규정하는게 아니라 반대로 당위가 가치를 규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레 반문한다. 무엇이 참으로 도덕적이고 아닌지 혼돈한 상황에서 도덕의 순수성과 확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칸트가 무엇보다 먼저 도덕의 엄정한 형식적 원리를 확립하는 기초작업에 주력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셀러가 이 점에만 주목하여 칸트 윤리학의 성격을 형식주의라 규정한 것은 조금하고 경솔한 속단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교수는 말하기를 하르트만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칸트의 진의는 단지 형식을 위한 형식에 치중하는 형식주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덕의 진정한 실질이 무엇인가를 엄정하게 규명하는데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점은 칸트 자신이 윤리학을 법률학과 대비해서 법률학은 단지 외적자유의 형식적 제약 즉 법률을 취급하지만, 윤리학은 이와 반대로 그밖에 또한 실질 즉 순수이성의 목적을 밝힌다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전교수는 오늘날 윤리학의 과제가 다시한번 칸트(Kant)로 돌아가서 그가 확립한 도덕의 형식적 원리에 따라서 인간이 누구나 다 같이 자기의 목적으로 정립하여야 할 목적내용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 규명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끝맺고 있다.

4. 윤리학 관련 연구논문

60년대 초반에서 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영미 메타윤리학의 연구와 칸트-셀러-하르트만에 이르는 독일 윤리학의 연구라는 두줄기 큰 흐름 이외에도 한국 윤리학계에는 서양철학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만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경향이나 흐름으로 부르기는 어려우나 우리 윤리학계의 다양한 관심과 철학적 역량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로 생각하여 간단한 소개 및 요약을 하고자 한다. 비록 개인적 수준에서 이긴 하나 윤리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업적을 이룬 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6.70년대를 두루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학자는 고범서 교수이다. 그는 일찍이 [R. M. Hare의 원리의 결단](1966)이라는 논문에서 메타윤리학적 관심을 보이기는 하나 곧이어 그는 사회윤리학으로 관심의 전환을 보이고 있다. 고교수는 [윤리학에 있어서 신뢰의 의의에 대한 연구](1966)를 영문으로 쓴 후 기독교 사회윤리학 연구에 몰두해 [Martin Luther의 사회윤리사상](1973), 영어로 쓴 대작인 “A Critique of the Situation Ethics Debate in the Light of Man’s Sociality”(1977) 등이 발표된다. 고교수는 그간에 발표한 논문들을 묶어 드디어 1978년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기독교 사회윤리의 향방)}라는 그의 대표 저서를 출간하게 된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 저자는 자신의 윤리학적 관심이 개인윤리에서 인간관계의 윤리를 거쳐 사회윤리로 변해왔음을 밝힌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의 저자의 기본입장은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정책과 제도, 나아가서는 사회구조에 의해서라야 가능하다는 것임을 밝히고 사회윤리의 현실적 구현을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의 개혁에 따라오는 기득권자의 저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의 역학관계와 윤리성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사회윤리에 대한 고교수의 관심은 부단히 추구되어 그 이후에도 {기독교와 사회윤리}, {변혁기의 사회윤리} 등의 저서들을 출간하고 있다.

70년대에 이르러 영미윤리학과 관련하여 많은 업적을 낸 사람은 김종문 교수와 이석재 교수이다. 김종문 교수의 업적으로는 [G. E. Moore의 Can의 의미분석과 Free Will문제](1971), [G. E. Moore의 선(善) 개념에 관한 일연구](1971), [G. E. Moore의 Naturalistic Fallacy 문제](1971), [A. J. Ayer의 Emotivism 소고](1976) 등이 있

고 1972년에 간행된 {현대 분석윤리 연구}라는 단행본도 있다.

이석재 교수의 논문으로는 [의미와 태도, C. Stevenson의 윤리적 진술의 분석에 관한 고찰](1972), [도덕적 행위의 책임 및 비난에 관한 연구](1972), [윤리적 이기주의 반박을 위한 메타윤리적 접근](1975), [도덕의 개념에 관한 분석적 연구](1976), [도덕에 있어서의 합리적 결단에 관한 하나의 연구](1977), [일상적 도덕언어의 의미에 대한 시론](1978) [덕의 개념에 있어서 전통과 자율](1978)이 있으며 1978년에 간행된 단행본 {탈각의 철학 : 실험적 인생론}이 있다.

이 밖에도 특히 영미 윤리학과 관련하여 한국 윤리학계를 이끌어간 학자 및 논저로서는 김영철 교수의 [윤리학에 있어서의 당위와 존재, 자연론적 오류와 관계하여](1963), [도덕적 의무에 관한 연구](1975), 김영진 교수의 “Prescriptivism and Neo-Naturalism”, 김기순 교수의 [윤리학에 있어서의 상대론과 실재론](1963), [선악 개념의 분석적 고찰 — H. Hume과 G. E. Moore의 설을 중심으로](1972), 김팔곤 교수의 [윤리학의 기본문제 : Frankena의 Ethics를 중심으로](1977), [윤리적 기본원리 정립에 있어서의 결단의 문제 : 분석적 윤리학설과 선원리의 상보를 시도하여](1979), 소홍렬 교수의 [덕 중심적 윤리와 체계중심적 윤리](1964), [윤리적 사고](1979), 송석구 교수의 [G. E. Moore의 선에 관한 연구](1969), [학으로서 윤리학의 가능성 근거](1971), [규범윤리학의 한계와 메타윤리학의 문제](1972), 이초식 교수의 [도덕판단의 발달에 대한 고찰](1970), [현대 결단리의 기본사상](1973), 최세진 교수의 [공리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1978), [심리학적 쾌락설 소고](1979) 등이 있다.

독일 윤리학과 관련된 학자 및 논저로는 민동근 교수와 하영석 교수 가 두드러진다. 민동근 교수의 논문으로는 [N. Hartmann의 윤리적 가치에 관한 연구](1965), [이념적 존재와 가치에 관한 연구, H. Hartmann을 중심으로](1975), [선과 최고선에 관한 연구](1977), [N. Hartmann의 윤리적 근본가치와 특수가치 (I)](1979) 등이 있다. 하영석 교수의 논문으로는 [가치문제의 현황에 대하여](1971), [초기

Scheler의 철학 고찰, 가치윤리학 정초에의 시도](1976), [칸트의 선협적 윤리학의 문제점](1977), [선협적 윤리학과 현상학적 윤리학](1977), [도덕성의 근거](1978) 등이 있다.

이밖에도 독일 윤리학에 관한 연구로는 박선목, 박태흔, 이근우, 이화춘, 이희주, 장재덕, 최일운, 강성위 교수 등의 논문이 눈에 띈다. 박선목 교수의 논문은 [칸트의 도덕률에 관한 연구](1969), [칸트의 도덕교육론에 관한 고찰](1978), [헬레니즘 시대의 두 윤리사상](1971) 등이며 박태흔 교수의 논문으로는 [칸트의 정언명법의 해석](1963), [윤리의 근원, Hans Reiner 교수의 이론](1966), [도덕적 당위에 관한 연구](1967), [Ed. Husserl의 윤리사상(I)](1979) 등이 있다. 이근우 교수의 논문으로는 [현상학적 가치윤리학, 가치와 존재](1975), [듀이의 가치판단과 실천적 행위로서의 가치](1976), [현상학적 윤리학의 가치영역에 관한 고찰](1979)이 있고 이화춘 교수의 논문으로는 [칸트 윤리의 근본문제](1971) [도덕철학에 있어서의 형식과 실질의 관계, Kant의 'Grundlegung'을 중심으로](1976), 이희주 교수의 논문으로는 [칸트의 윤리설에 관하여, 직각론적 윤리설을 중심으로](1975), [가치판단의 의미와 그 학적 가능성 여부에 관한 모색](1976), [윤리학은 학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1978), 장재덕 교수의 논문으로는 [칸트에 있어서의 최고선에 대한 소고](1966), [가치판단의 객관성에 관한 C. I. Lewis의 이론](1970) 등이 있다. 최일운 교수의 논문으로는 [선협적 자유의 본질, 실천이성비판의 근본문제로서](1966), [가치론의 정초문제에 대한 비판, 암기무옹박사의 강연을 듣고](1973), [논증적 윤리학의 정초를 위하여](1977) 그리고 70년대에 독일에서 귀국한 강성위 교수의 논문들도 주목할만한데 [사랑의 도덕과 정의의 도덕](1974), [가치의 혁명으로서의 근인애](1974), "Eine Kritik An Fernsten Liebe"(1975), [도덕의 근거가 되는 여러법칙들](1979), [새로운 윤리를 위한 두가지 모색](1979) 등이 있다.

5. 윤리학 관련 저술과 역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김태길 교수는 1964년에 간행된 *{윤리학}* 이외에도 영미윤리학과 관련된 다수의 저서 및 역서를 출간했다. 1967년 간행된 *{존 뒤이 사회철학}*은 영미 규범윤리학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며 *{새로운 가치관의 지향}*(1969), *{새 인간상의 정초}*(1973), *{인간회복 서장}*(1973), *{철학 그리고 현실}*(1978) 등의 저술이 있다. 역서로서는 B. 러셀 저 *{윤리와 정치}*(1956), P.B 라이스저 *{현대 도덕철학}*(1957) 그리고 공역으로서는 램프레히트 저 *{서양철학사}*(1963)가 있다.

김두현 교수는 앞서 소개한 *{윤리학 개설}*(1961) 이외에도 *{가치론 : 종합의 이론과 실제}*(1975), *{서양윤리학사}*(1976) 등의 윤리학 저서를 출간했다. 김기석 교수도 앞서 소개한 *{윤리전서 I}*(1960), *{윤리강령}*(1961) 등이 있다. 김영철 교수의 윤리학 저서로는 공저로서 *{윤리}*(1972)가 있으며 단독 저서로서 *{윤리학}*(1982), *{도덕철학의 제문제}*(1982) 등이 있고 윤리학 관련 역서로는 러셀이 쓴 *{결혼과 도덕}*(1960), 스피노자 저 *{에티카}*(1972) 등을 꼽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김태길 교수와 더불어 윤리학을 가르친 최재희 교수는 *{윤리학원론}*(1971), *{인간주의 윤리학}*(1978) 등의 저서를 남기고 있으며 칸트저 *{실천이성비판}* 역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연세대에서 윤리학을 담당한 김형석 교수도 *{윤리학}*(1976)이라는 개론서를 내놓고 있다. 앞서 소개한 고범서 교수의 *{개인윤리와 사회윤리}*(1978) 역시 개론적인 저술이기는 하나 소중한 기여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상교양 연구회가 1960년에 간행한 역서 스피노자 *{윤리학}*, 61년에 간행한 역서 *{공리주의}*도 눈에 띈다. 또한 박태흔 교수의 역서 *{칸트 도덕형이상학}*(1965), 정진 교수의 역서 칸트 *{도덕철학 원론}*(1970), 권명달 역 풀쿠르츠 *{현대사회의 윤리}*(1971), 최기원 저 *{서양윤리사}*(1971), 문철영 저 *{서양사상의 연원과 성장}*(1972), 서동익 역 칸트 *{프로레고메나}*(1972), 이병섭 역 니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1972), 이성근 역 벤담의 *{도덕 및 입법의 제원리서설}*(1972), 한운암 저 *{비판윤리학}*(1973), 김종문 저 *{현대분석 윤*

리연구}(1974), 양승두 역 테일러의 {정의론}(1976), 김태길외 저 {정의의 철학}(1977), 박기웅 저 {도덕, 공리 그리고 이율배반}(1977), 정석해 역 베르그송 {시간과 자유의지}(1977), 이석재 저 {탈락의 철학, 실험적 인생론}(1978), 전원배 역 {하르트만 윤리학}(1979) 등이 있다.

60년대에서 70년대 후반에 이르는 한국 윤리학계의 논저 현황은 전반적으로 개론적 소개와 입문서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영미윤리학이나 독일윤리학의 연구자들 가운데에는 윤리학의 토대나 학문적 가능근거에 대한 성찰과 고민의 흔적을 남긴 학자들이 있다. 이들의 기초작업은 다음 세대의 윤리학 연구를 위해서 소중한 자산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70년대 중반이후 한국 윤리학계는 단순히 서양철학의 유입에만 골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윤리적 현실에 즉한 윤리학의 모색을 향한 관심의 전환을 보이고 있다. 이점에 관해서는 80년대 이후 한국 윤리학 연구에서 보다 상론하고자 한다.